논어 8편 태백 1장 · 원문·풀이

子曰：「泰伯，其可謂至德也已矣！三以天下讓，民無得而稱焉。」

독음 · 자왈 태백 기가위지덕야이의 삼이천하양 민무득이칭언

쉬운 풀이(요약) · 태백은 왕위를 거듭 양보하고도 드러내지 않아 백성이 칭송할 자취조차 찾기 어려웠다. 공자는 이를 지극한 덕이라 했다.

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

글자 뜻과 음(대표 훈음 ·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

子 아들 자 / 曰 가로 왈 / 泰 클 태 태 / 伯 맏 백 백

其 그 기 / 可 옳을 가 가 / 謂 고할 위 위 / 至 이를 지 지

德 큰 덕 덕 / 也 어조사 야 / 已 이미 이 이 / 矣 어조사 의

三 석 삼 삼 / 以 써 이 이 / 天 하늘 천 천 / 下 아래 하 하

讓 사양할 양 양 / 民 백성 민 민 / 無 없을 무 무 / 得 얻을 득 득

而 말이을 이 / 稱 저울질할 칭 칭 / 焉 어찌 언 언

저본: 위키문헌 論語 ·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